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보성군, 남북 평화시대 대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범

남북 교류·협력 사업 선제적 대응



보성군은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및 문화, 예술, 농업 등 남북 관련 민간인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남북교류위원회는 무르익어가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발맞춰 보성군에 맞는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이 끝나고 준비된 제1차 회의에서는 정부의 대북사업

정책방향에 맞추어 앞으로 보성군이 대비해야 하는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남북평화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보성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에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남북 교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동력이 남북 교류협력으로 생각된다."면서 "오늘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범으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우리군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의 활로 개척을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 2019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 잔결음

광양읍·봉강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동 순회



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14일부터 광양읍과 봉강면을 시작으로 올해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첫 일정인 광양읍민과의 대화는 14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인사말에 이어 2019년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한 뒤 지역민

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광양읍 목성지구 개발, 청년 행복주택 건립,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들이 큰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문화와 옛 것이 공존하는 광양읍을 만들기 위해 도립미술관, 문화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제조산업을 활성화하여 광양읍 인구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봉강면민과의 대화에서 정 시장은 "백운저수지 테마공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불계곡을 우리 삶의 휴식공간이자 동시에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며, 복분자, 포고버섯 등 특화작목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아이행복, 청년희망, 여성안전, 어르신기 건강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시민들 위주로 대상자를 초청하였다.

광양=김승호 기자

영광군,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지중화사업 착수

영광군은 영광을 농협중앙회에 서부터 화정리 회진교차로까지 전선·통신 지중화 및 인도 정비 사업을 49억6천3백만 원을 들여 올해 2월 말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은 본 공사는 한진과 통신사

에서 선로를 지하로 매설을 한 후 군에서 인도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의 도로가 협소하고 굴착작업이 많아 사업으로 인한 통행 불편은 물론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 공사로 인한 많은 불편사항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까지 동시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황인욱 서부산림청장 순천국유림 처음방문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의 순천국유림관리소 처음방문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및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산불예방 및 산사태 방지 등 산림재해 예방 철저를 통해 각종

국민체감형 산림정책으로

숲속의 대한민국 실현 주문

사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청의 정책목표인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비세먼지 저감 도시숲' 및 '산림복원사업' 등 사람중심의 산림자원 조성 추진과 산림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일자리 정책 현장추진 및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

광양시는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예산 1억 원을 증액해 올해 6월까지 위기 사유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출, 행방불명, 휴·폐업, 중한 질병, 가정폭력, 재난과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 상반기 한시적 완화기준을 살펴보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또는 유가족) 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관계부서(통합사례관리사)의 추천자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월 346만 원), 재산 1억1천8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전년도 대비 일반재산 기준을 3천3백만 원 완화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기준 월 119만 원), 주거지원(4인 기준 42만 원),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에는 통합사례 공무원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 그리고 지난해 12월 16일에 위촉된 민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우리동네 빛누리단' 535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희망농정 소통위원회' 출범

순천시는 지난 15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인, 지역대학 교수,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순천시 희망농정 소통위원회'를 출범식을 개최했다.

'희망농정 소통위원회'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우리지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출범하게 되었고,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소통위원회는 3개 분과(농산물 생산·기술분과, 농식품 가공·유통분과, 농촌 활력·복지분과)로 위촉된 위원 37명, 위원장(순천시장은

포함한 당연직 위원 8명 등 총 45명이며, 농업 관계 기관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됐다.

앞으로 희망농정 소통위원회는 분과별 농촌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제도개선, 농업현안 문제 등을 수시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순천시에 제안하여 농업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희망농정 소통위원회를 통해 농업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시 농업정책에 반영해 농업인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한다

함평군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1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직원 1명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관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면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군은 납세업무 특성상 객관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무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무팀에 배치해 법적 검토와 지원을 유도한다.

오금열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의 납세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권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사사·자문번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